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 여 경¹⁾

한 세 영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도성을 통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서울·수도권 대학생 270명(남: 116명, 여: 15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용된 척도로는 Barber(1996)의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 박아청(1996)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중 주도성을 나타내는 문항, Osipow 등(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주도성을 통해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각각 이성부모로부터 다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남녀 대학생의 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남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대학생, 심리적 통제, 주도성, 진로미결정

* 본 논문은 정여경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1)을 일부 수정·보완한 논문이며,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evenhow@ewh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 시기는 부모와 학교의 감독 및 통제 안에서 주어진 시간표대로 생활하던 중·고등학교 시기와 달리 성인이 되어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발달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전 생애 발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년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는 전 생애발달에서 초기발달에서 후기발달로 전환되어 가는 시기이다(김가미, 소용준, 박준성, 2018).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로 Arnett(2015)는 자아정체감과 자율성 발달을 제시하였으며, Havighurst(1968)는 대학생의 주요 발달 과업으로 부모 혹은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였다(김은진, 천성문, 2001). 이러한 발달과제들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이 시기의 성공적인 과업의 수행은 성인기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개인의 대학생활동뿐 아니라 직업선택과 미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진경, 2017; 정소영, 김수진, 2019).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진로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최종적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

다. 하지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2018)에서 실시한 대학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 진로(57.9%)’ 라는 응답이 나왔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50%의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Morgan & Ness, 2003). 또한, 대학상담소의 상담고민 1순위는 진로상담이고 대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의지나 소망이 없거나 원하는 것이 있어도 탐색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한국교육방송공사, 2011). 더욱이 부족한 진로확신을 가진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휴학하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등 취업 전 지연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김지경, 이상호, 이성용, 2016; 황임숙, 장성숙, 2010). 하지만, 대학생의 발달단계에서 진로미결정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진로미결정이 부적응과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Multon, Heppner, Gysber, Zook, & Ellis-Kalton, 2001). 특히, 대학생들은 진로미결정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진로선택에 대한 개인적 자긍심과 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보았으며, 일상에서의 행복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Creed, Patton, & Bartrum, 2004). 또, 진로결정과정에서 탐색과 관여를 해내가는 동안 대학생들은 과정상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자기회의, 불안, 혼란함을 느끼게 된다(Blustein, 1988; Hartman & Fuequa, 1983).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로미결정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한 개입과 관련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해야 할 진로선택에서 직업과 진로를 선택 및 결정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상태이다(Crites, 1981).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을 연구한 선행연구(Saka & Gati, 2007)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중요한 사람에게 과도한 비판을 받거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 진로미결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진로를 결정할 때 대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부모(약 32%)라는 연구가 보고되었다(교육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17).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가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역기능적 양육태도에 속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선택하여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심리적 수단을 통해 자녀의 사고나 감정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조종하려는 양육방식을 의미한다(Barber, 1996).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심리·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이희란, 2012), 그 중에서도 내재화 및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키는데 위협이 되고(Joussemet, Landry, & Koestner, 2008), 학업 및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arber, 1996, 2002).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진로결정수준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정소영, 김수진, 2019),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하지 않을수록 자녀의 진로결정 자율성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정은교, 안도희, 2018).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학업지연행동 등 자녀의 전반적인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소희, 이재림, 2014; 김미라, 김문희, 홍지영, 2021; 우영지, 이기학, 2007; 윤석주, 2011; 이향림, 최용용, 2020; 정소영, 김수진, 2019; 조주연,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진로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심리적 통제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대학생의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도성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성격특성이다(Bateman & Crant, 1993). 또한, 자신의 일을 조직화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독립적, 협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와 일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기도 하다(배선희, 2005). 주도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김지자, 김인아와 안현미의 연구(2000)에서 자기주도성은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기도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태도로 보았다. 그 중에서도 김혜경과 이소영의 연구(2020)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자기주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은 과열된 입시경쟁을 치르는 동안 통제된 환경에 익숙해져 자기 주도성을 확립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고, 대학 졸업 후에도 직장생활에 안정을 찾을 때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문화적 풍조가 만연하다(이소담, 신나나, 2018; 최인재, 2007; 황매향, 2006).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자녀가 경험한 경우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도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은 주도성을 바탕으로 성취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의 탐색과 결정이 주요발달과업이며,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도성은 필수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대학생의 주도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McArdle, Waters, Briscoe와 Hall의 연구(2007)에서는 주도적인 성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Heish와 Huang(2014)의 연구에서도 주도적인 성격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각각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은 각각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ay & Padilla-Walker, 2009; Williams & Kelly,

2005). 특히, 영유아기 및 아동기의 어머니 중심의 양육(김고은, 조남익, 2017)과 달리, 청년기의 인지적·발달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들은 어려운 결정이나 문제에 대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하수경, 2014)가 있었다. 즉,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발달시기에 따라 그 의미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이 남녀 대학생 각각의 발달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권소희, 이재림, 2014; 정소영, 김수진,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경우, Kang과 Ahn의 연구(2015)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할 경우 자녀의 정서지능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진로발달이 지체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경우도 하수경(2014)은 어머니의 지지와 대학생 자녀의 진로결정효능감이 정적상관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 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민지애, 유금란, 2015; 박지현 2016; 오세화, 이신동 2020; 윤은경, 박승민, 2018; Dang Wan, 안도희, 2017; Raque-Bogdan, 2013)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진

로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누어서 분석하지 않았고, 분석하였다고 해도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각각 남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도성을 통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추가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성도 구분하여 이러한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다면 자녀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부모교육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주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270명(남학생 : 116명, 여학생 : 15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주도성 및 진로미결정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령은 20 - 22세 60명(22.2%), 23 - 25세 145명(53.7%), 26 - 28세 63명(23.4%), 29 - 30세 2명(0.7%)으로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4.17세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학년은 4학년이 152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 60명(22.2%), 2학년 49명(18.2%), 1학년 9명(3.3%) 순이었다. 전공은 공학이 78명(28.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과학이 77명(28.5%)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인문학이 40명(14.8%)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연구대상의 부모님과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와 동거가 171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취 85명(31.5%)으로 많았다. 연구대상의 아버지의 연령은 51-55세가 121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56-60세가 106명(39.3%)으로 두 번째로 많

왔다. 어머니의 연령은 51-55세 150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46-50세가 52명(19.3%)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2. 측정도구

심리적 통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를 최명진(2010)이 번안 및 타당화한 자기보고형 심리적 통제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언어적 표현의 제약(3문항), 감정의 무효화(3문항), 개인적 공격(3문항), 죄책감 유도(2문항), 애정의 철회(3문항), 기괴한 정서적 행동(2문항)으로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을 단일요인으로 통합하여 측정하였다(윤은경, 박승민 2018; 정소영, 김수진 2019).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을 꺼내시곤 한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기분이 어떤 지를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가족의 문제가 내 탓이라고 비난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아버지, 어머니로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9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94로 나타났다.

주도성

대학생의 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1996)이 개발하고 박아청(2003)이 타당화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한 설영숙(2011)의 척도 중 주도성을 나타내는 4문항을 사용하였다. 주도성의 문항의 예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나는 내 판단에 자신이 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기어코 끝내고야 만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이 주도성이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주도성은 .74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은 Osipow, Carney와 Barak(1976)이 개발한 척도를 고향자(199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진로와 전공수준에 대한 확신 수준과 진로미결정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와 전공

수준에 대한 확신 수준을 제외하고 사용한 선행연구(고향자, 1992, 2000; 하상희, 2012, 2015)를 바탕으로, 진로와 전공수준에 대한 확신 수준(2문항)을 제외하고 진로미결정(16문항)만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 ‘나의 전공분야가 내게 만족할만한 진로를 제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아주 그렇다(4점)’로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이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진로미결정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2021년 1월 중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질문지를 수합하는 대신에 온라인을 활용하여 질문지를 수합하였다. 먼저, 서울 소재의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사에 대한 안내와 질문지 링크를 게시하여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질문지에 대한 간단

한 안내와 질문링크를 공유하여 자율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총 8-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온라인을 이용하여 총 313부의 응답을 수합하였다. 수합된 313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응답 17부에 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26부를 포함하여 총 43부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313부에서 43부를 제외하고 270부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2.0,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문항 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 및 진로미결정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남학생, 여학생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로분석 및 간접효과 검증 실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분석 및 기술통계

남녀 대학생 부모의 심리적 통제, 주도성 그리고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남녀 대학생으로 나누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주도성,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대학생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남자 대학생의 경우, 첫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주도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r = -.23, p < .05$)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r = -.31, p < .01$) 모두 주도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할수록,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이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주도성과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도성이 진로미결정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57, p < .01$). 즉, 남자 대

학생의 주도성이 더 높을수록,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이 더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r = .23, p < .0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r = .28, p < .01$)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할수록,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여자 대학생의 경우, 첫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주도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모두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 대학생과는 달리, 여자 대학생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주도성이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주도성과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주도성이 진로미결정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42, p < .01$). 즉, 여자 대학생의

표 1. 남녀 대학생 부모의 심리적 통제, 주도성,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1	2	3	4	$M_{\text{남}}$	$SD_{\text{남}}$
1.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42**	-.04	.25**	1.94	0.74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61**	-	-.09	.05	2.23	0.89
3. 대학생의 주도성	-.23*	-.31**	-	-.42**	3.53	0.84
4.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23*	.28**	-.57**	-	2.19	0.58
$M_{\text{남}}$	1.96	1.87	3.73	2.10		
$SD_{\text{남}}$	0.79	0.81	0.77	0.54		

주. 대각선 아래는 남자 대학생($n = 116$), 대각선 위는 여자 대학생($n = 154$)

* $p < .05$. ** $p < .01$.

주도성이 더 높을수록, 여자 대학생 진로미결정은 더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미결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r = .25, p < .01$)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여자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미결정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경로분석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도성을 통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남녀 대학생을 대

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대학생의 성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주도성이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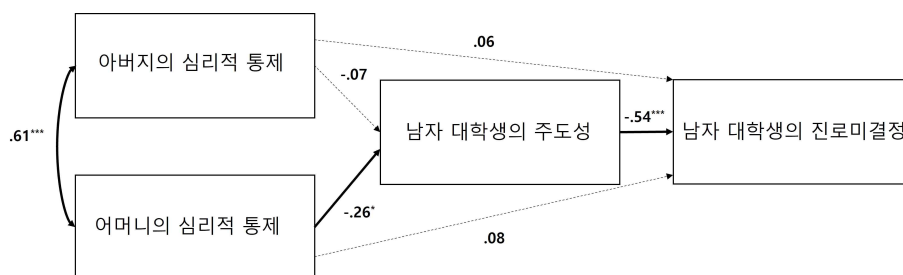
측정변인 간 경로를 살펴본 결과(표 2, 그림 1 참조),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남자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중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이 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6, p <$

표 2.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116$)

측정변인 간의 경로	<i>B</i>	β	<i>S.E.</i>	<i>C.R.</i>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04	.06	.07	.6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05	.08	.07	.79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 →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38	-.54	.06	6.72***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	-.07	-.07	.11	-.6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	-.25	-.26	.11	-2.36*

* $p < .05$. *** $p < .001$.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 $p < .05$. *** $p < .001$.

그림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와 간접적 경로

.05), 주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 = -.54, p < .001$). 즉,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주도성이 낮게 나타나며,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주도성을 통한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들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4, p < .05$). 다중상관자승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그리고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은 진로미결정을 34.0%로 설명하였으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을 9.7%로 설명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주도성이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측정변인 간 경로를 살펴본 결과(표 4, 그림 2 참조), 여자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beta = .28, p < .001$). 즉,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여자 대학생이 더 많이 지각할수록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모두 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beta = -.42, p < .001$). 즉,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이 낮을수록,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주도성을 통한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5에 제시되어있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표 3.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주도성을 통한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116)

잠재변인 간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06	.04	.1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08	.14*	.22	.34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 →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54*		-.54*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	-.07		-.07	.10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	-.26*		-.26*	

주. 1)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2)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에 의한 결과임. 3)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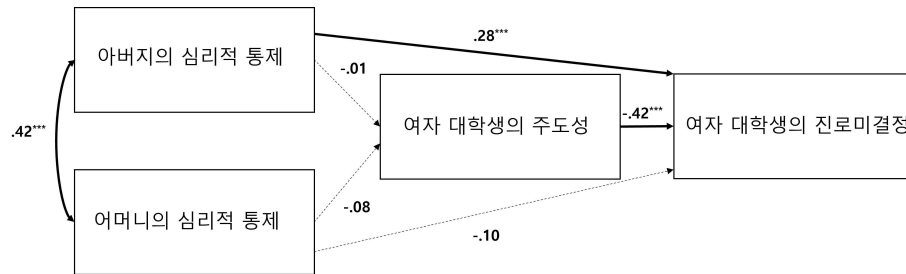
* $p < .05$.

표 4.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

($N = 154$)

측정변인 간의 경로	B	β	$S.E.$	$C.R.$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22	.28	.06	3.58***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07	-.10	.05	-1.31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 →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29	-.42	.05	-5.97***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	-.01	-.01	.10	-.09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	-.08	-.08	.08	-.92

*** $p < .001$.



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 $p < .001$.

그림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와 간접적 경로

표 5.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주도성을 통한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154$)

잠재변인 간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MC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28*	.00	.28*	.2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10	.03	-.07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 →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42*		-.42*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	-.01		-.01	.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	-.08		-.08	

주. 1)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2)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결과임. 3)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치임.

* $p < .05$.

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중상관자승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그리고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은 진로미결정을 24.4%로 설정하였으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을 0.7%로 설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모두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후반의 남성들의 진로결정에는 아버지-아들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결과(Blustein et al., 1991)와 일치하지 않았다. Paa와 McWhiter의 연구(2000)에서도 동성의 부모 즉 아버지일 경우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진로기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

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Blustein 등의 연구(1991)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애착과 진로발달수준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Paa와 McWhiter의 연구(2000)에서는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기대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진로를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역기능적인 양육태도 중에 하나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앞선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심리적 통제의 효과가 다른 양육태도의 효과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버지 양육의 긍정적 요소들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나 이와 달리 부정적 요소인 심리적 통제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며, 심리적 통제 외에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다른 측면이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버지 양육의 모든 측면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아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또한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아들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방식, 애착이 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다(Lease & Dahlbeck, 2009). 이는 어머니가 평소 심리적 통제를 반복할 때 초기 성인기 자녀들의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게 된다고 보았던 연구(Barber & Harmon, 2002; Luyckx, Soenens, Vansteenkiste, Goossens & Berzonsky, 2007)로 뒷받침 된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지속될 때 남자 대학생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이러한 영향이 대학생 시기에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리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경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내적변인인 주도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유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은경과 박승민의 연구(2018)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율성과 유능감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정체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욕구라는 심리적 기제의 내면화과정을 통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기제가 남자 대학생 자녀의 주도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발달과업을 달성해가지 못한다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도성의 손상이라는 내적 기제를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만이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딸의 관계를 살펴보면, Blue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의 연구(1991)에서 청소년기 후반의 여성들의 진로결정은 부모님과의 상호간의 신뢰 및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으며, Lopez의 연구(1989)에서도 여학생은 아버지와의 갈등 없는 관계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자면,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인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 여자 대학생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안정감 보다는 불안, 불신, 우울, 수치심 등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울과 불안증상은 초기 성인들의 고등교육의 입학률 낮추고, 학업성취도를 낮추며, 최종적으로 진로불확실성과 관련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letcher, 2008; Rottinghaus, Jenkins, & Jantzer, 2009; Salemla-Aro, Aunola, & Nurmi, 2008). 또 다른 관점으로는 초기 성인기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성격 혹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같은 객관적인 영역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딸들의 중요한 학업 및 직업적인 결정을 할 때 아버지의 지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Desjardins과 Leadbeater의 연구(2017)로 뒷받침 된다. 이는 남자대학생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자 대학생은 영향을 직접 받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여학생들의 경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에게 지원, 안심 및 실질적인 조언을 얻으려고 한다(Desjardins & Leadbeater, 2017). 즉, 초기 성인 여성들은 성격 혹은 관계에 대한 만족은 어머니를 통해서 얻는다. 반면 아버지는 비교적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더 많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교육, 진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지원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아들의 진로미결정 및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경제적인 지지와 같은 객관적인 영역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유추할 수 있다. Desjardins과 Leadbeater의 연구(2017)에 의하면 여자대학생은 진로미결정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을 가진 아버지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 받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자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거나 미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딸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이 지속될 경우 여자 대학생 자녀의 진로미결정이 강화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딸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 자녀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전반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학업 및 진로와 같은 특정영역에서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연구(김지근 2009; 마은애, 손은정, 2014)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이 상관관계 또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청소년 중기부터는 돌봄 중심의 어머니의 양육에서 점차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양육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고은, 조남익, 2017). 또,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보다 비교적 적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강한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진로결정에 있어서 어머니보다 직업생활을 더 많이 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본 권소희와 이재림의 연구결과(2014)로 뒷받침된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자 대학생의 다양한 발달영역 중에 진로결정을 하는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거나 어머니의 영향을 적게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지 남녀 대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경로별로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과보호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기주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김원, 박은아, 천성문의 연구(2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박아청과 우채영의 연구(2008)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Biller(1993)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했을 때 사회적 성숙 및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이 발달되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Whiteside-Mansell, Bradely, & Mckelvey, 2008)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내적변인에 해당되는 주도성보다는 사회성 발달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은 아버지의 영향력 보다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

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주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혜경, 이소영, 2020). 선행연구(Soenens & Vansteenkiste, 2010)에 의하면 어머니 심리적 통제의 경우 자녀의 자율성 욕구를 좌절되게끔 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자녀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 비밀관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노경선, 허묘연, 홍현주, 2003)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자 대학생의 적극적 태도, 자기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에 주요발달과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강명숙과 방은령의 연구(2014)에서 자기주도성은 진로결정효능감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즉, 주도성이 낮은 대학생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환경을 변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현재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대학생의 주요 발달과업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유사한 결과가 나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지현(2016)의 연구에서 대학신입생의 부모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자 대학생은 어머니의 양육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으로 인해 표

상화된 추상적인 관념이나 내면화된 심리적 요소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여자 대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모두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개입이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Cullaty, 2011).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모두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이 발달단계의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은 대학생 시기가 아닌 다른 발달시기에 주도성 발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주도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자기주도성이 진로적응성,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탐색활동을 향상시킨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결과이다(박진아, 2014; 장은영, 2012;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 2011). 하지만, 여자 대학생의 주도성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매개효과나 간접효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성인이 된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진로결과와

관련해 부모의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여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주도성을 통해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각 이성부모로부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남녀 대학생의 성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 영향경로를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의 예방 및 개입과정에 있어 외적인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적인 요인인 주도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서 진로결정에만 어려움을 겪는 여자 대학생들과는 달리,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자아발달의 중요한 요소인 주도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낮은 주도성을 내재화한 남자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영역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양육과정에서 주도성을 형성하는 대학생들의 내적인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주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기준을 선정한 후 필요한 경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주도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자 대학생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주도적인 진로선택을 한다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양육이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결과에 주

목하여 부모의 적절한 개입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는 광범위한 지역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자녀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외에도 또 다른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외적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 다른 부모의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연구 중 많은 경우가 애착 및 애정, 자율, 합리, 성취적 양육태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양육의 긍정적 측면의 영향과 다소 다르다는 것을 밝혀,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측면의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도성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부모의 다양한 양육방식이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주도성에 대한 개념 확립 및 적절한 척

도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주도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4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주도성의 구성요소를 모두 심층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주도성의 구성요소를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도성이라는 변인은 청소년기와 성인초기 발달에 더 심층적으로 탐색해야 할 변수이므로 향후 좀 더 많은 연구대상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심리적 통제를 아버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주도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대학생의 주도성을 통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남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을 살펴보기 위해 외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적 요인인 주도성을 포함하여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주도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남녀 대학생의 주도성이 진로미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남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생들의 주도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명숙, 방은령 (2014).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활동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443-467.
- 권소희, 이재림 (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41-61.
<https://doi.org/10.7466/JKHMA.2014.32.5.41>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향자 (2000).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및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 109-124.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발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가미, 소용준, 박준성 (2018).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63-83.
<https://doi.org/10.16881/jss.2018.01.29.1.63>
- 김고은, 조남익 (2017).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7), 191-213.
<https://doi.org/10.21509/KJYS.2017.06.24.7.191>
- 김미라, 김문희, 홍지영 (20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8(3), 123-137.
- 김민 (2011). *다큐프라임: 나는 꿈꾸고 싶다*. 서울: 한국교육방송공사.
- 김원, 박은아, 천성문 (2016).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8(2), 123-142.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동서정신과학*, 4(1), 147-162.
- 김지경, 이상호, 이성용 (201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근 (2009). 부·모와의 친밀-개별화가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장주도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근, 이기학 (2011).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활동과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활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https://doi.org/10.15703/kjc.12.1.201103.81>
-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학습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12(1), 117-209.
- 김혜경, 이소영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 및 자기주

- 도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3), 1289-1308.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3.1289>
- 노경선, 허묘연, 홍현주 (2003). 청소년기 애착 유형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 신경정신의학*, 42(1), 116-123.
- Dang Wang, 안도희 (2017).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과 대학생의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 진로결정여부에 대한 다집단 분석. *진로교육연구*, 30(1), 201-223.
<https://doi.org/10.32341/JCER.2017.03.30.1.201>
- 마은애, 손은정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2035-2051.
<https://doi.org/10.15703/kjc.15.5.201410.2035>
- 민지애, 유금란 (2015).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45-63.
<https://doi.org/10.21193/kjspp.2015.29.1.003>
-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15(1), 140-162.
- 박아청 (200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아청, 우채영 (2008).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2(1), 69-85.
- 박지현 (2016). 대학신입생의 부모지지, 친구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859-880.
- 박진경 (2017).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아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자기조절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선희 (2005). 몬테소리 교육이 유아의 자기주도성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영숙 (2011). 부모의 권위주의 성향이 대학생 자녀의 자아정체감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화, 이신동 (2020). 지각된 성취목표지향성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육*, 20(3), 631-649.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3.631>
- 우영지, 이기학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40.
- 윤석주 (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애착관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경, 박승민 (2018).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진로정체감과 관계에서 기본심리적 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4), 137-148.
<https://doi.org/10.21097/ksw.2018.11.13.4.137>
- 이소담, 신나나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 대학생의 불안: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역할. *인간발달연구*, 25(2), 79-97.
<https://doi.org/10.15284/kjhd.2018.25.2.79>
- 이향림, 최웅용 (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재연구*, 20(8), 819-849.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8.819>
- 이희란 (2012). 부모의 자율성 지지 및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적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소영, 김수진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4(4), 145-157.
- 정은교, 안도희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2), 171-192.
<https://doi.org/10.21097/ksw.2019.11.14.4.145>
-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아분화,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주연 (2018).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진 (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과 매개효과의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임상*, 26(3), 611-628.
<https://doi.org/10.15842/kjcp.2007.26.3.004>
- 하상희 (2012). 남녀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정신건강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177-195.
- 하상희 (2015). 부모애착이 자기분화를 통해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 진로미결정, 이성관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4), 189-209.
- 하수경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339-36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2018).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1. 진로교육 현황조사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2018).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황매향 (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 교육연구*, 7(3), 187-203.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915.x>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22-000>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pp. 15-52).

-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22-002>
- Bateman, T. S., & Crant, J. M. (1993).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 behavior: A measure and correlates. *Journal of Organization Behavior*, 14(2), 103-118. <https://doi.org/10.1002/job.4030140202>
- Billar, H. B. (1993). *Fathers and families: Paternal factors in child development*. Greenwood: Publishing Group.
- Blustein, D. L.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al process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3(3), 345-357. [https://doi.org/10.1016/0001-8791\(88\)90025-5](https://doi.org/10.1016/0001-8791(88)90025-5)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y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0167.38.1.39>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4). Internal and external barriers, cognitive style, and the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of focus and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 277-294. <https://doi.org/10.1023/B:JOCD.0000025116.17855.ea>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Cullaty, B. (2011). Th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in the autonomy development of traditional-ag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2(4), 425-439. <https://doi.org/10.1353/csd.2011.0048>
- Day, R. D., & Padilla-Walker, L. M. (2009). Mother and father connectedness and involve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6), 900-904. <https://doi.org/10.1037/a0016438>
- Desjardins, T., & Leadbeater, B. J. (2017). Changes in parental emotio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ulthood: Direct and indirect associations with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djustment. *Emerging Adulthood*, 3(3), 177-190. <https://doi.org/10.1177/2167696816666974>
- Fletcher, J. M. (2008). Adolescent depression: Diagnosis, treat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Economics*, 17, 1215-1235. <https://doi.org/10.1002/hec.1319>
- Hartman, B. W., & Fuqua, D. R. (1983). Career indecision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A reply to grites. *The School Counselor*, 30(5), 340-346.
- Havighurst, R. J. (1968).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8(2), 67-71. <https://doi.org/10.1093/geront/8.2.67>
- Heish, H. H., & Huang, J. (2014).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roactive personality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 29-43. <https://doi.org/10.1002/j.2161-0045.2014.00068.x>
- Jensen Arnett, J. (2015). Socialization in emerging adulthood: From the family to the wider

- world, from socialization to self-socialization. In J. E. Grusec & P. D.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85-108). The Guilford Press.
- Joussemet, M., Landry, R., & Koestner, R. (2008).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parenting. *Canadian Psychology / Psychologie Canadienne*, 49(3), 194-200.
<https://doi.org/10.1037/a0012754>
- Kang, W. D., & Ahn, G. Y. R. (2015). The influence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y Psychology*, 20(4), 739-764.
- Kim, K.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rearing attitude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Lease, S. H., & Dahlbeck, D. T. (2009). Parental influence, career decision-making attribution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2), 95-113.
<https://doi.org/10.1177/0894845309340794>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a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https://doi.org/10.1016/0001-8791\(89\)90049-3](https://doi.org/10.1016/0001-8791(89)90049-3)
- Luyckx, K., Soenens, B., Vansteenkiste, M., Goossens, L., & Berzonsky, M. D. (2007). Parental psychology control and dimens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546-550.
<https://doi.org/10.1037/0893-3200.21.3.546>
- McArdle, S., Waters, L., Briscoe, J. P., & Hall, D. T. (2007). Employability during unemployment: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and human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247-264.
<https://doi.org/10.1016/j.jvb.2007.06.003>
- Morgan, T., & David, N. (2003).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of first-year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31(1), 33-39.
- Multon, K. D., Heppner, M. J., Gysbers, N. C., Zook, C., & Ellis-Kalton, C. A. (2001). Client psychological distress: An important factor in career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4), 324-335.
<https://doi.org/10.1002/j.2161-0045.2001.tb00960.x>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https://doi.org/10.1016/0001-8791\(76\)90081-6](https://doi.org/10.1016/0001-8791(76)90081-6)
- Raque-Bogdan, T. L., Klingaman, A. K., Martin, H. M., & Lucas, S. L. (2013).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 An investigation of contextual variabl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 339-353.
<https://doi.org/10.1002/j.2161-0045.2013.00060.x>
- Rottinghaus, P. J., Jenkins, N., & Jantzer, A. M. (2009). Relation of depression and affectivity to career decision status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 17, 271-285.
<https://doi.org/10.1177/1069072708330463>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340-358.
<https://doi.org/10.1016/j.jvb.2007.08.003>
- Salmela-Aro, K., Aunola, K., & Nurmi, J. (2008).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during emerging adulthood: Antecedents and consequenc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439-465.
<https://doi.org/10.1080/17405620600867014>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 Review*, 30(1), 74-99.
<https://doi.org/10.1016/j.dr.2009.11.00>
- Whiteside-Mansell, L., Bradley, R. H., & McKelvey, L. (2009). Parenting and preschool child development: Examination of three low-income U.S. cultural grou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 48-60.
<https://doi.org/10.1007/s10826-008-9206-1>
- Willam, S. K., & Kelly, F. D. (2005). Relationships among involvement, attachment,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ce: Examining father's influ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2), 168-196.
<https://doi.org/10.1177/0272431604274178>

1 차원고접수 : 2022. 04. 08.

수정원고접수 : 2022. 08. 30.

최종게재결정 : 2022. 09. 27.

The Effect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Initiative on Career Indecision

Jung, Yeo Gyung

Han, Sae-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s of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indirect effects through initiative o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A total of 270 college students (116 males and 154 females)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including a measure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and initiativ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d direct effects on female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Secon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d indirect effects on male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through initiative.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initiative on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These results can be used on the development of parent's education programs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parent psychological control and college students' career indecision. Also,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oretic basis in the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initiative.

Keywords: college student, psychological control, initiative, career indecision